

##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노태약 선관위장 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50곳으로 파악”	정치	
2	젠스황, 깃잎에 삼겹살 씹...‘막내’ 구광모 회장이 고기 구워	사회	
3	시진핑 8, 9일 평양 간다... “김정은 초청 국민 방문”	국제	

### (1)기사/뉴스요약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사태 파악 등도 제대로 못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3일에는 14곳이라고 발표했다가 4일 인천 지역 2곳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4228곳 중 67곳이었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를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각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때 준비해 놓은 예비용 투표용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 윤 실장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송파구에서는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오후 2시경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단체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용지가 없어) 곧 투표 중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각하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노 위원장은 3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 2인자인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건물 뒷문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오전 8시 15분경부터 시위대를 한 명씩 분리해 손과 발을 잡고 끌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시위대를 전원 이동 조치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투표함 2개 반출을 완료했다. 3일 오후 10시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경찰은 곧바로 투표함을 차량에 실어 개표장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했고, 선관위는 이날 비로소 지방선거 개표를 마무리했다.

## 2)기사/뉴스요약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첫날 일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고깃집에서 '삼소(삼겹살·소주)' 회동을 가졌다. 네 명의 CEO가 이끄는 기업, 그룹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9700조 원 가까이 된다. 거의 '1경 원' 짜리 저녁 테이블이 만들어진 셈이다.

5일 황 CEO는 이날 오후 7시 10분경 홍대입구역 인근 삼겹살집 '형님 저요'에서 최태원·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과 저녁을 함께 했다. 이날 모인 네 CEO가 이끄는 기업 및 그룹의 시가총액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약 8280조 원이다. SK하이닉스 등 SK그룹은 1139조 원으로 추정된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은 약 223조 원, 네이버는 40조~41조 원 정도다. 모두 더하면 약 9684조 원으로 '1경 원(10,000,000,000,000원)' 가까이 된다.

황 CEO가 도착하기 전, 최태원 회장과 구광모 회장, 이해진 의장은 먼저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눴다. 격식을 갖춘 공식 회동이라기보다 편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이후 황 CEO가 식당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황 CEO는 최 회장과 이 의장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네 사람은 맥주잔을 들어 건배한 뒤 식사를 시작했다.

네 사람은 별도의 통역 없이도 대화를 활발히 이어가며 도중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황 CEO의 장녀이자 엔비디아 로보틱스 마케팅 총괄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의 모습도 포착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했던 흰색 박스를 들고나와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선물을 직접 나눠줬다. 해당 선물은 'HBM 칩스'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11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출시한 '허니바나나맛' 과자다. 반도체 칩을 본뜬 사각형 형태로 제작됐다.

황 CEO는 시민들에게 HBM 칩스를 나눠준 뒤 "More HBM! More HBM! (HBM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이어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어 한국에 왔다"며 "한국은 매우 잘하고 있다. 한국의 파트너들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국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싶다"며 "오늘은 믿을 수 없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가 한국 AI(인공지능) 기술센터 설립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한국의 AI 연구 엔지니어, 로봇 공학자들을 채용 중이며 이들은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를 아신다면 이곳에 일하러 오라고 전해 달라"고도 했다. 또 황 CEO는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며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 (3) 기사/뉴스요약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2019년 6월 방북 이후 약 7년 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시 주석이 두 번째 방북에 나서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앞서 2008년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주석 취임 후에는 2019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9개월 만에 재회하게 된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한이 4일 김 위원장의 새 핵물질 생산 시설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시 주석의 방문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계기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공식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표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새 핵시설 공개에도 시 주석이 북한에 가는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북한 입장에서 (시 주석 방북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러 ‘반미 연대’ 공고화를 통해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방북을 통한 경제 협력으로 북-러 밀착으로 약화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에 대응한 북-중-북-중-러 안보 협력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사설]TSMC “삼성의 추격은 꿈”... 1983년 인텔도 “망상”이라 비웃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인 대만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이 4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삼성 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상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젠스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앞두고 자사 경쟁력을 강조하고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의 밀착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7.2%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단기간에 선두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 환경 변화는 추격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TSMC도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빅테크 등이 일부 생산 물량을 다른 곳으로 돌려 ‘공급 병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추격자들에게 기회다.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높아지고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수주가 이어지는 만큼 여세를 몰아 격차를 좁히고 ‘파운드리 양강 체제’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TSMC는 안정적인 파운드리 매출을 토대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 메모리 업황에 실적 영향을 받는 삼성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무게중심을 두는 노사정 3자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 삼성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반도체 기업이다. 믿고 생산을 맡기려는 고객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부 갈등을 키우는 성과급 파업과 같은 자해 행위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21세기 편자의 못’으로 불리는 반도체 경쟁은 국가 대항전이다. 웨이 회장은 “TSMC의 파운드리에서 시작해 후공정인 패키징 테스트, 시스템 조립 등 수십 년간 대만이 축적한 생태계는 한국이 단기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팀 타이완’에 맞서 ‘팀 코리아’의 반도체 생태계 추격전도 시동을 걸어야 한다. 43년 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을 때 미국 인텔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었지만, 삼성은 해냈다. K반도체가 더 뛰지 못할 이유가 없다.